

‘뽕목항의 소리, 진실을 인양하라’

세월호 참사 5주기... 전북교육청서 추념식 열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16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12

일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뽕목항의 소리, 진실을 인양하라’를 주제로 학생추념위원들이 제작한 추모영상, KBS전

주어린이합창단의 합창, 편지낭독, 전주시 고등학교 연합 윈드오케스트라의 추모공연이 진행됐다. 또한 영상과 외 8교가 참여하는 뮤지컬, 초등교사 동아리 ‘동요샘 앙상블’의 중창과 도내 중·고등학생 120명이 참여하는 플래시몹 공연도 이어졌다. 추념식과 함께 도교육청 1층 갤러

리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제작한 아이들의 모습과 편지글을 담은 압화 작품 전시회를 담은 시간 전 시회가 5월 22일까지 열린다. 한편 도내 각급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계기 교육과 함께 학생들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일반고 학생 역량강화 지역대학이 함께 한다

전북교육청, ‘주말 강좌’ 운영

전북교육청이 지역대학과 연계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예술·체육 및 진로·적성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 일반고·대학연계 주말 강좌'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운영된다.

강좌는 전주기전대·전주비전대·한국농수산대·군장대·원광보건대·백제예술대 등 6곳에서 진행되며, 도내 일반계고 학생 2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좌별로 매주 토요일 4시간씩 12회 차, 총 48시간 진행된다.

개설된 강좌를 살펴보면 전주기전대에서 제과제빵·반려견관리·커피바리스타 강좌를, 전주비전대는 영상·시각디자인, 피부&네일, 재난안전과 현장응급처치, 태권도, 3D모델링시제품 제작교육을 운영한다.

또한 한국농수산대는 스마트 농업을, 군장대는 기초제과제빵을, 원광보건대는 뷰티아티스트와 요리사를, 백제예술대는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듀서 양성 과정을 각각 진행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강좌는 도교육청이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실험실습 재료비 명목의 일체의 잡부금을 학생들에게 부과할 수 없다.

총 수업 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란에 '도교육청 주관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 강좌 과정을 이수함'이라고 담입교사가 입력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기초직업 분야 교육을 제공해 자신의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학생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한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사교육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학교가 제1회 원광미래혁신포럼을 최근 교내 프라임관 1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미래시대에 대응하는 대학발전 전략 모색

원광대, 미래혁신포럼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대학 위기를 진단하고, 교육혁신 사례 공유를 위한 제1회 원광미래혁신포럼을 최근 교내 프라임관 1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대학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학 운영 상황 진단과 함께 미래발전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원광 미래혁신위원회'를 구성한 원광대는 이현정(전 상명대 총장) 한양대 석좌교수를 초청해 제1회 포럼을 마련했으며, 이현정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강연을 펼쳤다.

이날 포럼에는 원광학원 허중규 이사장과 박맹수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위기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대응하는 대학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맹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시대 대학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구성원들의 합심 협력을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며, "오늘 포럼이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기술 등 산업 구조의 가변성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강화 및 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이현정 교수는 "1~3차 산업혁명이 물리적 산업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상상력을 가진 모든 것을 구현하는 가상 산업혁명이다"라며, "이러한 점이 대학의 큰 위기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하면서 "상상력이 일반화되면 교수의 역할과 커리큘럼이 바뀌고, 캠퍼스 중심의 대학이 사라지며, 학습자 특성과 학습의 장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직적 산업혁명이 아닌 융합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할 지라도 대학은 존속하겠지만, 변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전에 가까운 진정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2030년에는 60세의 대학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제한 이현정 교수는 "승자독식에 따라 최초 또는 가장 유일한 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며, "교육 패러다임과 삶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공영역 개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현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을 학위·스펙·시험 없는 사회, 교육이 계속 이어지는 순환교육사회, 직업에 초점을 맞춘 직업 학습사회, 학습자가 주도권을 갖는 개인 학습사회로 단정하고, 대학이 사회적 수요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 해답임을 강조했다.

한편, 원광대는 포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의 위기의식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합심 협력을 통해 미래 사회에 걸맞은 성공적인 교육혁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북 총잡이들, 전국대회서 메달 획득 '맹활약'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최근 대구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2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전북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린중학교 사격부는 남자공기권총 단체 1위를 차지했고, 정우진(3년)과 김강현(3년)은 개인전에서도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지난 3월 창단한 뒤 이달 초 대학연맹기 전국대학생사격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하며 다크호스로 떠오른 한일장신대 사격부도 이번 대회에서 공기권총 단체 2위에 올랐다.

또 우수대 사격부 역시 공기소총 단체 3위를 기록했고 임실군청의 황성은은 화약권총(25m)에 출전해 3위를 차지했다.



전북사격연맹 관계자는 "우리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올해 열리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의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며, "각 선수들이 부상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사격연맹 관계자는 "우리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올해 열리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의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며, "각 선수들이 부상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지역인문학센터, '고전으로 세상읽기' 강좌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4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6주간 인문강좌 '고전으로 세상읽기'를 진행한다.

다양한 강좌를 통해 역사적 중요성을 배우고, 소통하기 위한 '고전으로 세상읽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20분부터 원광대 승산기념관 2층 제1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열린다.

강좌는 18일 서덕민 원광대 융합교양대학 연구교수의 '북방 정서와 토속신앙' 강연을 시작으로 이용석 원광대 미술과 교수의 '한국의 미와 동양미학', 김선식 예원대 교수의 '음악과 마음', 김주용 동북아시아 인문사

회연구소 HK 교수의 '범일지', 이병한 교수의 '삶의 의미로서의 종교문화', 김재호 원광대 한의예과 교수의 '승정원일기 속 조선의 건국법과 질병치료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역인문학센터장 강연호 교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옛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전문학의 역사적 중요성을 배움으로써 역사문화의 관심이 깊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전으로 세상읽기 강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 지역인문학센터 (850-7293~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도교육청, 학생기자단 58명 본격적인 활동 돌입

전북교육청 제10기 학생기자단이 1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0기 학생기자단을 공개 모집했으며, 자체 심사를 거쳐 초등 6학년 19명,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22명 등 총 58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학생기자단은 학생의 시각에서 교육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해마다 운영해오고 있다.

이들 학생기자단은 13일 본청 2층

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연간 계획 안내를 시작으로 취재기사 작성법, 인터뷰 기법, 사진에 대한 이해와 촬영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생기자단 급별 담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주영(전주신성초), 김지원(서전주중), 이순선(한빛고) 수석교사가 초·중·고 각급별로 담임을 맡아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기사 첨삭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학생기자단은 2020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제6회 품바명인전 개최를 축하합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

장수군 번암면 봉화산